

새로운 불평등,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디지털 사회의 명암, 디지털 격차

- 20세기 말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이른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 디지털 경제추세에 발 맞추어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저변에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가 구현되고 있음
- 지식이 부가가치의 핵심 원천을 차지하고 지식의 획득 여부가 각 개인의 삶의 질, 부, 직업 등을 좌우하는 현실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서 디지털 자원의 보유여부나 디지털 기술의 활용여부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 디지털 사회에서는 삶의 질이 풍요롭고 다양화되는 밝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부분도 적지 않음. 가령 IT관련 전문직종과 그렇지 않은 직종간 존재하는 소득격차라든가, IT기술에 의한 노동력 대체에 따른 실업 등이 그러한 예임
- 이외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의 무단복제, 정보의 오·남용 등도 디지털 사회가 초래하는 어두운 면이라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디지털 사회가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음영은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 부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최근 OECD나 EU 등의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는 이를 본격 문제제기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디지털 격차를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기회,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개인·가계·기업·지역간 갭’으로 이해하는 반면, EU는 기술 및 하부구조의 차원/정보통신 수단과 콘텐츠 사용 차원/지식과 숙련 차원/ 권력관계 차원 등 네 차

원으로 규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취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디지털 격차는 사회계층 및 지역간 통신인프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과 이용가능성, 말하자면 정보부자(information haves)와 빈자(information have-nots)간의 불평등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물론 사회의 불평등이란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에 중첩되어 그 불평등 양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디지털 격차의 주요 양상들

- 앞의 개념에 따라, 현재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 디지털 격차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수단으로의 접근(access)과 이용가능성임
- 이들 두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과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차원 외에 가구유형, 연령, 성, 인종, 지리 등의 차원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를 파악함
- 일반적으로 가계 및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PC보급율과 인터넷 활용율이 결정되며,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빈도에서 차이를 나타냄
- 가령 미국의 경우 전화사용과 같은 전통적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PC와 인터넷 접근과 관련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또 시간에 따라 더 확대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음
- 앞의 보고에 따르면, 대졸자는 초등학교졸업자에 비해 컴퓨터 보급률에 있어서 8배,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 16배의 차이를 보임. 또한 도시 지역 고소득 가구는 농촌 저소득 가구와 비교하여 인터넷 접근에서 20배의 차이를 보임(NTIA, 1999, Falling Through the Net)

- 최근 우리나라의 조사도 소득별/직업별/교육수준별로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율을 둘러싸고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표 1]은 학력별/소득별/직업별 인터넷 이용율 차이를 나타낸 것임
 - 학력별로 볼 때, 2002년 말 대졸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하여 6배의 인터넷 이용율을 나타냄
 - 소득의 경우, 고소득자(250만원 이상)는 저소득자(150만원 미만)와 비교하여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직업별로 볼 때,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임
- 이와 같이 계층별 디지털 격차는 지난 2000년 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다가 2002년 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1] 한국의 사회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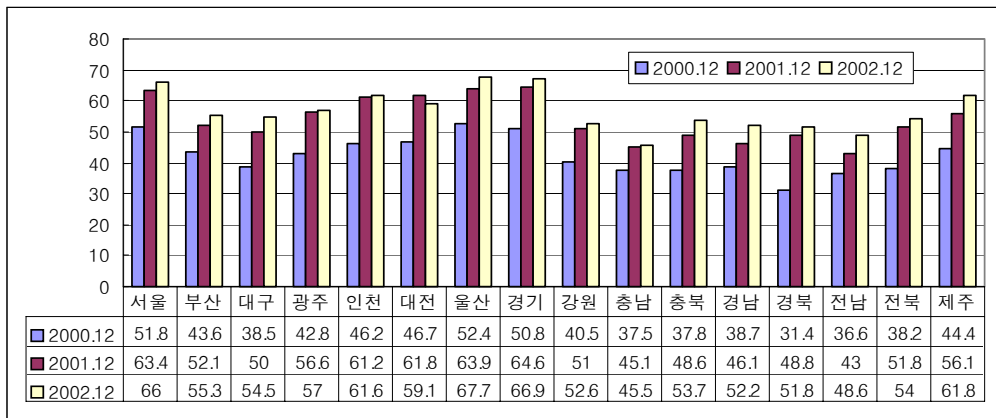
구분		2000.12	2001.6	2001.12	2002.6	2002.12
학력별	초등졸이하	0.8	1.2	2.4	12.3	12.9
	중졸	5.9	7.6	8.4	10.8	10.1
	고졸	27.8	37.5	41.2	43.4	46.2
	대졸이상	67.4	74.1	80.6	82.1	79.5
소득별	150만원 미만	35.1	38.8	36.8	34.9	38.5
	150~250만원	49.8	55.9	61.0	61.5	63.7
	250만원 이상	56.0	62.9	70.4	72.6	71.2
직업별	전문/관리직	66.8	74.1	83.9	80.9	81.4
	사무직	69.8	78.3	83.3	81.2	79.7
	서비스/판매직	27.0	34.6	36.3	38.7	40.5
	생산관련직	12.2	23.3	25.3	29.2	30.0
	학생	78.7	89.9	95.0	94.5	95.5
	주부	19.6	26.7	33.0	37.1	37.3
	무직/기타	23.6	25.3	30.1	31.1	33.7
	미취학	7.2	26.6	39.0	62.6	63.5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계층별 디지털 격차와 함께 지역별 인터넷 이용율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사가 시작된 2000년 12월 이후 2002년 6월까지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공간적 측면에서 볼 때, 우선 전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율은 지난 3년간 44.7%에서 5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경기, 울산 등이 최상위의 인터넷 이용율을 나타내는 지역임
- 이와 함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와 비대도시간,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간 격차 등 지리적 측면에서의 디지털 격차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지역간 격차의 전체적 모습을 나타내는 이용율의 표준편차는 2000년 12월 6%에서 2002년 6월 7.6%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감소함
 - 대도시의 평균과 군단위 지역 평균간의 차이는 2000년 12월 14.2%에서 2002년 6월 18.6%까지 확대되었다가 12월 16.5%로 감소
 - 최고이용율을 보인 지역과 최저 지역간 차이 또한 21%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6월 현재 25%를 나타냄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림 1]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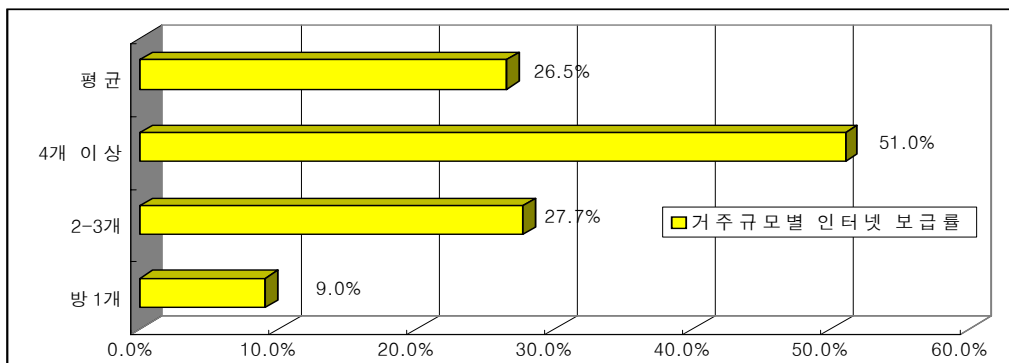
[표 2]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추이 (단위: %)

	2000.12	2001.6	2001.12	2002.6	2002.12
표준편차	6.0	6.7	7.2	7.6	6.5
지역규모별 차이 (대도시-군단위)	14.2	15.5	16.7	18.6	16.5
최고치 - 최저치	21.0	21.3	21.6	25.0	22.2
상위3개 평균 - 하위3개 평균	16.5	17.7	19.2	22.1	18.2
전체 평균 (서울)	44.7 (51.8)	51.6 (58.2)	56.6 (63.4)	58.0 (65.4)	59.4 (66.0)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통계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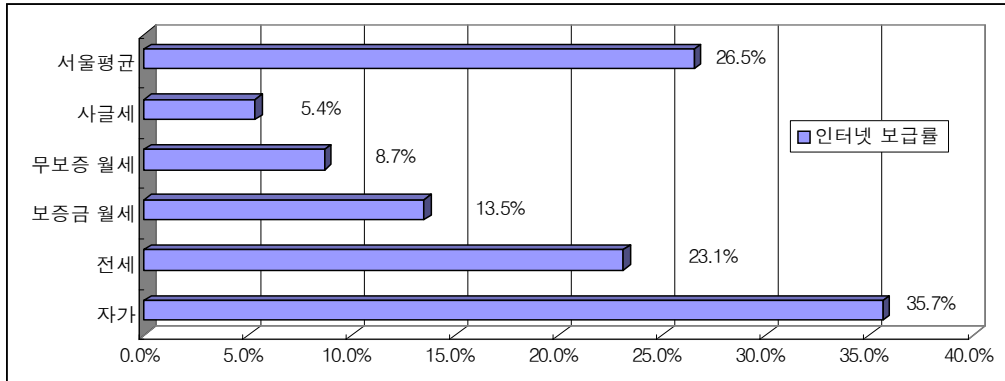
○ 서울의 디지털 격차

- 2000년 인구총조사 자료(인구 2% 표본)에 근거한 서울시의 정보통신 이용실태에 관한 분석에서도 계층별 디지털 격차가 확인되고 있음
- 우선 소득별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총조사 상의 소득 대리변수라 할 수 있는 거주규모 및 주택소유형태별 인터넷 이용실태를 파악함
- 두 변수 모두에서 인터넷 보급률에 일정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방 4개 이상의 가구는 방 1개 가구의 4.5배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실태를 보임. 마찬가지로 사글세와 무보증월세 가구와 자가 주택소유자 사이에는 4~6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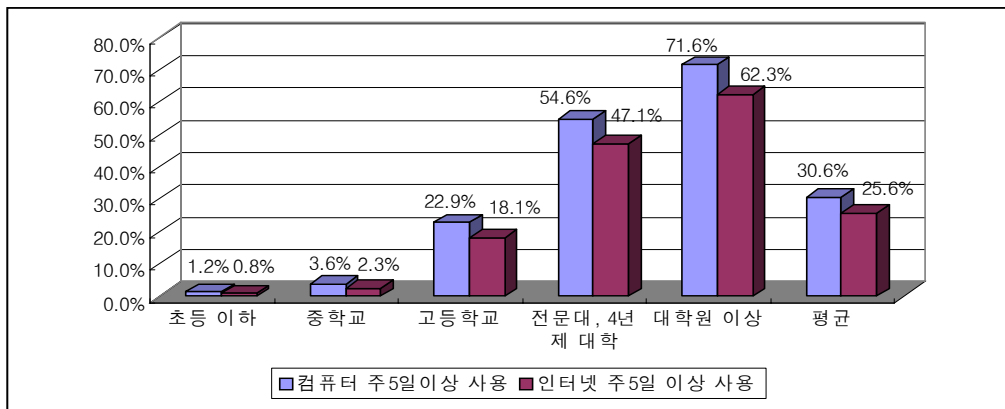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가구의 거주규모별 인터넷 보급률 분포현황(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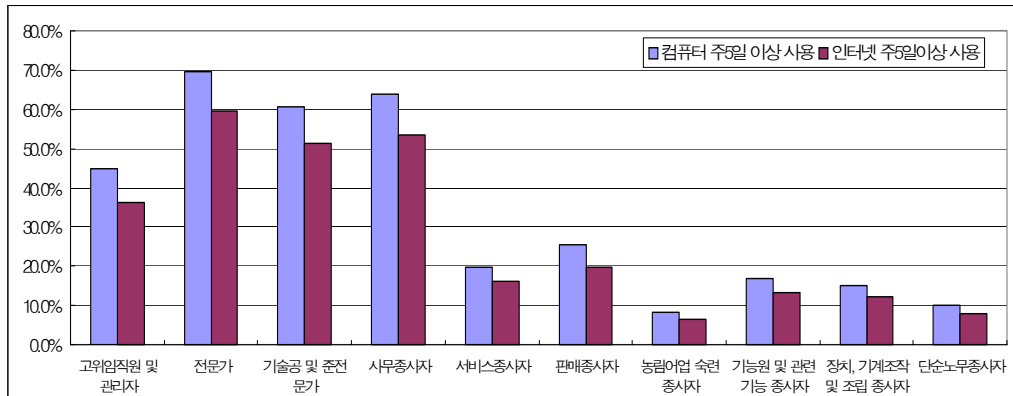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주택의 소유형태별 인터넷 보급률 분포현황(가구 기준)

- 교육수준 및 직업별로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가령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자는 고졸자와 비교할 때,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자는 컴퓨터와 인터넷 모두 5% 이하의 극히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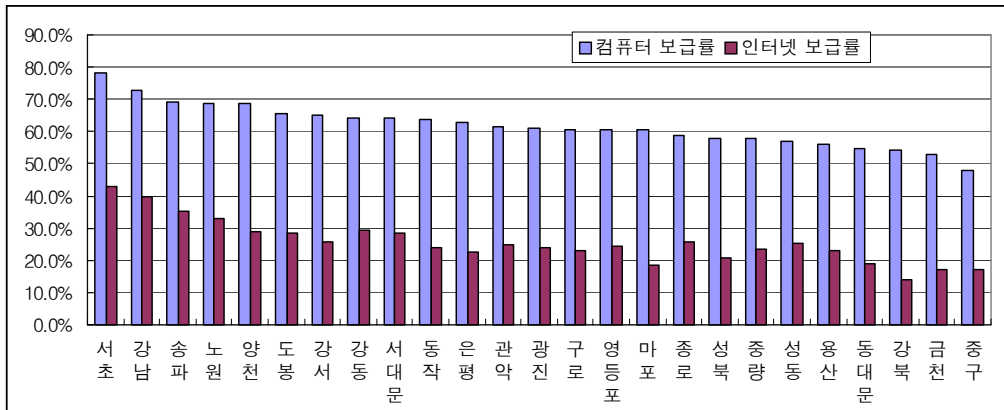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교육수준별 컴퓨터 활용상태 분포(개인 기준)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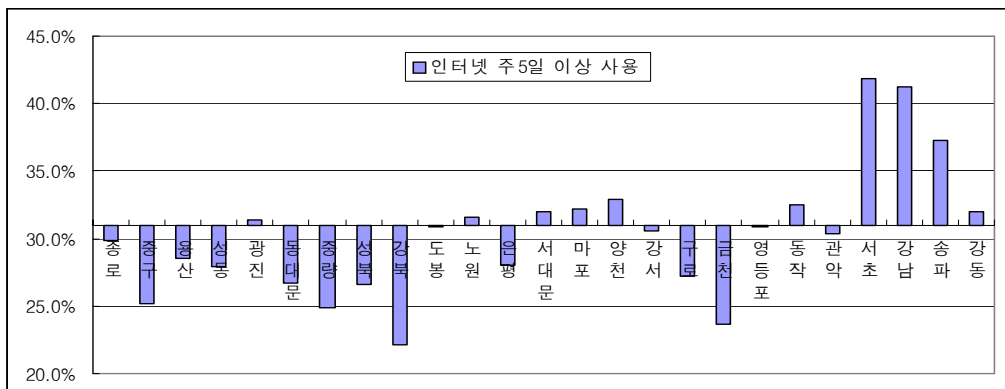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직업별 컴퓨터 활용상태 분포(개인 기준)

- 이와 함께, 지역별로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디지털 매체로의 접근성을 의미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지역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이용가능성을 나타내는 인터넷 사용빈도(가구주의 주 5일 이상 사용 기준)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그림 7] 참조)
- 전체적으로, 디지털 격차와 관련하여 대략 4개의 지역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최상층 지역군으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이며, 상층 지역군으로 양천구, 마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이며, 하층 지역군으로 관악구,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이며, 마지막으로 최하층 지역군으로는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 중구, 동대문구 등임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그림 6] 서울시 자치구별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률 분포현황(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그림 7] 서울시 자치구별 인터넷 활용상태 분포

○ 디지털 통합을 향하여

-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이면에는 디지털 격차가 상당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경우에 디지털 격차가 소득이나 교육수준간의 격차를 매개로 하여 전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성격을 지님
-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의 심화는 다양한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한 개

인이 자아를 실현함은 물론, 급변하는 사회에 각 개인이 신속한 적응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궁극적으로 특정 집단과 계층의 배제로 이어져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디지털 사회의 심화에 직면하여 확대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중요한 정책문제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기초하여 최근 선진 각국 및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접근과 이용가능성이 각 개인의 지불용의 능력, 시장구매력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영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적 원칙 하에 현재의 디지털 격차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격차와 배제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책영역이 해야 할 그 다음의 행동임
- 마지막으로 각 계층별, 지역별로 양질의 서비스에 손쉽게 그리고 균등하게 접근하여 부담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접근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제된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교육 및 학습기회의 제공과 같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정병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jbs66@sdi.re.kr